

제 269호 · 2014년 8월 13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2014년 상반기, 미국·유럽 경기 회복세로 아시아 항만 물동량 증가
2. 지멘스, 미국 롱비치~LA항 전기화 고속도로(e-Highway) 사업 계약 체결
3. DHL, 라틴 아메리카 지역 신규 LCL 서비스 개시
4. 푸조, 물류의 중요성을 경험

물류시장동향

1. Marken, 마이애미 물류 센터 확장
2. GLP, 중국 창고회사 지분인수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□ 2014년 상반기, 미국·유럽 경기 회복세로 아시아 항만 물동량 증가

-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4년 상반기 아시아 주요 항만의 화물 처리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2014년 상반기 아시아-유럽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간 0%의 성장률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8%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
 - 아울러 같은 기간 아시아-북미간 물동량도 전년 동기간 1.5% 성장률을 보인 데 비해 4.7%증가해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음
 - 이와 같은 결과는 해운·물류 관련 정보, 데이터 및 자료 서비스 기관인 JOC.com에 보도에 따른 것임
- 싱가포르에 상장된 세계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Hutchison Port Holdings는 미국과 유럽 화물의 증가와 환적 물동량의 확대로 2014년 상반기에만 16%의 높은 순수익 증가를 달성, 아시아 항만 물동량 증가세의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됨
 - Hutchison Port Holdings는 상하이 등 중국에 10개, 홍콩에 4개, 멕시코에 4개 등 전세계에 60개 이상의 터미널 운영 중임
 - 이번 순수익 증가는 주로 홍콩과 옌티엔 등 아시아 지역 항만 터미널을 통해 달성함
 - 홍콩에서는 홍콩국제 터미널(HIT), 아시아컨테이너터미널(ACT)¹⁾, COSCO-HIT 터미널 등을 운영 중이며, 이들 3개 터미널에서만 7%(6.22백만 TEU)의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했음
 - 또한 2014년 6개월간 중국 옌티엔 항만에 위치한 자회사 옌티엔 국제컨테이너 터미널(YICT)도 5.18백만 TEU를 처리, 전년 대비 5%의 증가율을 보였음
- 말레이시아 클랑항의 최대 항만 운영사인 Westports Holdings도 2014년 상반기 중 화물 처리량이 전년 대비 13% 증가라는 매우 인상적인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됨
 - Westports Holdings는 2014년 상반기 4.02백만 TEU의 처리량을 기록했으며,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환적 컨테이너 물량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분석됨
 - 말레이시아 남부에 위치한 Tanjung Plepas 항만 또한 같은 기간 화물 처리량이 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항만들 또한 2014년 상반기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
 - 상하이는 2013년 동기 대비 5%의 성장세를 보였음

1) 2013년 3월, 허치슨에 의해 인수됨

- 한편 Ningbo는 2013년 동기 대비 13% 증가율을 기록, 두 자리수 성장률을 달성했음
- * 특히 2014년 4월~6월 컨테이너 물량은 매월 각각 20%, 15%, 16%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
- 한편 한국의 부산항은 2014년 상반기 총 9.115백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, 3.5%의 증가율을 기록했음
- 이는 부산 신�항의 환적 물량 증가(5%)에 의해 기인한 것임
- JOC.com은 주요 동-서간 항로에서의 높은 선박 이용율, 중국 제조업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아시아 항만 물동량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<중국 옌티엔 항만 위치 및 항만연계 도로망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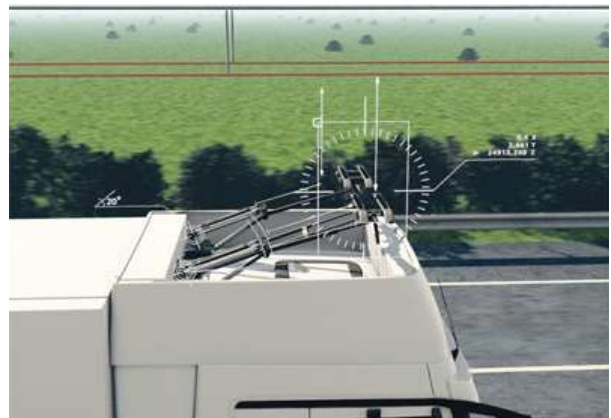
자료 : www.joc.com. 2014.8.10.

박성준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973, sjpark@kmi.re.kr)

□ 지멘스, 미국 롱비치~LA항 전기화 고속도로(e-Highway) 사업 계약 체결

- 글로벌 전자전기기업 지멘스(Siemens)²⁾가 미국 남가주 대기관리국(SCAQMD)과 롱비치항~LA항간에 세계 최초의 전기화 고속도로 시스템 사업 계약을 체결함
 - 지멘스는 롱비치항~LA항간의 I-710 고속도로 1마일 구간 상하행선에 전기화 시스템 설치에 곧 착수할 계획임
 - 동 구간은 공중에 케이블이 있는 커터너리(Catenary) 시스템을 통해 전기 트럭 및 하이브리드 트럭에 전기를 공급하게 됨³⁾
 - 2015년 7월부터 매일 4대의 전기트럭이 동 구간에서 양방향으로 시범 운행될 계획이며, 시범 운행 기간은 1년임

<지멘스 전기화 고속도로 및 트럭 전기 공급시스템 조감도>



자료 : www.mobility.siemens.com

- 전기화 고속도로는 지역 대기오염 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운송비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며, 향후 주요 항만과 산업·물류 시설간 운송통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미국 제 1, 2위 컨테이너항인 롱비치항과 LA항 구간에는 현재 매일 약 35,000대의 트럭이 운행 중이며,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오염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음
 - 지방 정부들이 향후 롱비치항과 LA항, 인근 내륙 물류허브간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(Zero-emission) 운송통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화 고속도로의 확대가 예상됨

자료 : www.usa.siemens.com, 2014.8.6.

김세원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ksw@kmi.re.kr)

2) 통신·철도망 등 인프라 사업에 근간을 둔 지멘스는 2011년 “인프라&도시 사업 부문(Infrastructure & Cities Sector)”을 출범했으며, 철도시스템, 물류운송, 스마트 그리드 등 부서를 갖추고 있음

3) 현재 지멘스와 볼보그룹 자회사 Mack Trucks가 공동으로 상기 시스템에 부합하는 시범 차량을 개발 중에 있음

□ DHL, 라틴 아메리카 지역 신규 LCL 서비스 개시

- DHL이 라틴 아메리카 4개 지역에 컨테이너 소화물(LCL, Less Than Container Load) 신규 직송 루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임
- DHL의 신규 루트는 중국 칭다오(Qingdao)-브라질 산토스(Santos), 프랑스 르아브르(Le Havre)-멕시코 베라크루즈(Veracruz), 미국 마이애미(Miami)-파나마 콜론(Colon), 홍콩-니카라과 마나과(Nicaragua, Managua) 루트임
 - 지난 5월과 6월부터 신규 루트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, 이를 통해 배송시간 단축,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를 얻게 됨
- DHL 글로벌 포워딩 해상화물의 Jens Rehder 부사장은 “DHL의 신규 LCL 운송 루트는 성장하는 기존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규모의 시장과 기업들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줄 것”이라고 언급함
 - 또한 신규 운송루트를 통해 안전성 확보, 합리적인 가격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
- 신규 LCL 운송 루트는 패션, 기술, 소비재, 예비 부품 및 의료 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 - 중국 칭다오-브라질 산토스, 홍콩-니카라과 마나과 루트의 경우 기존 운송시간에 비해 약 35일, 프랑스 르아브르-멕시코 베라크루즈 루트는 약 14일이 절감되었으며, 미국 마이애미-파나마 콜론 루트는 5일이 소요됨
- DHL은 현재 세계 최대의 규모인 약 45,000개의 국제 해상 컨테이너 소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,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
- DHL은 컨테이너 소화물 운송시 화물의 접수, 집화, 혼재, 분류, 배송, 모니터링 등의 전 단계에 대해 지속적인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자료 : www.expressparcelandpostal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 2014.8.5.

손보라 연구원 (☎ 02-2105-2914, bora62@kmi.re.kr)

□ **푸조, 물류의 중요성을 경험**

- 최근 PSA 푸조-시트로엥⁴⁾은 물류가 자동차 산업에서 이익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함
 - 프랑스 자동차 제조회사는 2012-13년의 어려웠던 시기로부터 회복되는 단계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익을 실현함
 - 이번 회생의 주요인은 자동차 판매 대수의 증가이지만 PSA 회생의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물류를 잘 관리한 것임
- 특히 PSA는 완성차의 재고를 잘 관리했음
 - 2012년 PSA의 완성차 재고는 심각한 상태였으며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24만 3천대의 차량을 제외하고도 22만 5천대의 차량을 팔지 못함
 - 현금유동성의 영향은 컸는데, 회사 자산의 유동성 고갈은 심각했고 금융비용은 증가했음
 - 하지만 5월 말 기준으로 완성차의 재고를 17만대로 줄임
 - 그 결과 현금유동성은 3억 4300만 유로가 개선되었으며 회사의 현금잔고는 10억 유로 이상 개선됨
- 공장 가동률은 2013년의 72%에서 2014년에 84%로 증가해 자동차 한 대당 제조비용을 크게 줄임
 - PSA는 '수취와 지급'의 관점에서 공급사슬의 유동성을 크게 개선시켰는데 이는 현금유동성의 이익에 영향을 줌
 - 공급사슬 관리는 'in-bound 재고와 공정중재고'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완했음
- 주목할 만한 것은 PSA의 경우 회사가 악조건에 처한 상황을 받아 들였지만 다른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사업의 특성상 받아들이지 않음
 - 거의 20년간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조차 재정적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팔리지 않는 차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임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4.8.05.

양규석 연구원 (☎ 02-2105-2928, yks8065@kmi.re.kr)

4)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푸조가 프랑스 자동차 기업 시트로엥을 인수하면서 탄생한 그룹

물류시장동향

□ Marken, 마이애미 물류 센터 확장

- Marken이 중앙-라틴 아메리카지역의 의약품 물류 사업 성장 촉진을 위해 자사의 마이애미 물류 시설을 확장했음
 - 새로 확장된 시설은 의약품 조달 및 저장, 입출·하를 위한 지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
 - 이번 물류 센터는 지역 프로젝트 관리, 고객 서비스 및 글로벌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추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
 - 또한 중앙-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입지한 점을 감안하여 입출·하 시 온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적하물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, 이번 물류 센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함
- Marken은 동 물류 센터를 통해 의약품 물류 사업을 성장 시키는 한편, 브라질, 칠레, 페루에서도 새로운 물류 센터를 구축할 계획임
 - 이러한 투자는 남미에서의 의약품 공급망 및 수요에 대한 Marken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임

자료 : <http://transportinfrastructure.logistics-business-review.com/> 2014.8.1.

김은미 연구원 (☎ 02-2105-2835, usea1004@kmi.re.kr)

□ GLP, 중국 창고회사 지분인수

- 싱가포르의 GLP(Global Logistics Properties)⁵⁾가 중국 최대 창고물류 기업에 3억 2400만 달러를 투자함
 - GLP는 중국 국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출자를 결정하고 상하이 CMST Development Co⁶⁾의 지분 15.3%를 인수하여 2대 주주가 될 예정
- GLP는 CMST와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할 것이며 CMST가 이미 소유한 땅에 5억 8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물류시설을 개발할 계획임
 - GLP 관계자는 CMST의 부지는 철도에 인접해 있는데, 향후 상하이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함

5) 싱가포르의 재고창고 전문 개발운영업체로 중국, 일본, 브라질에 현대화된 물류시설을 제공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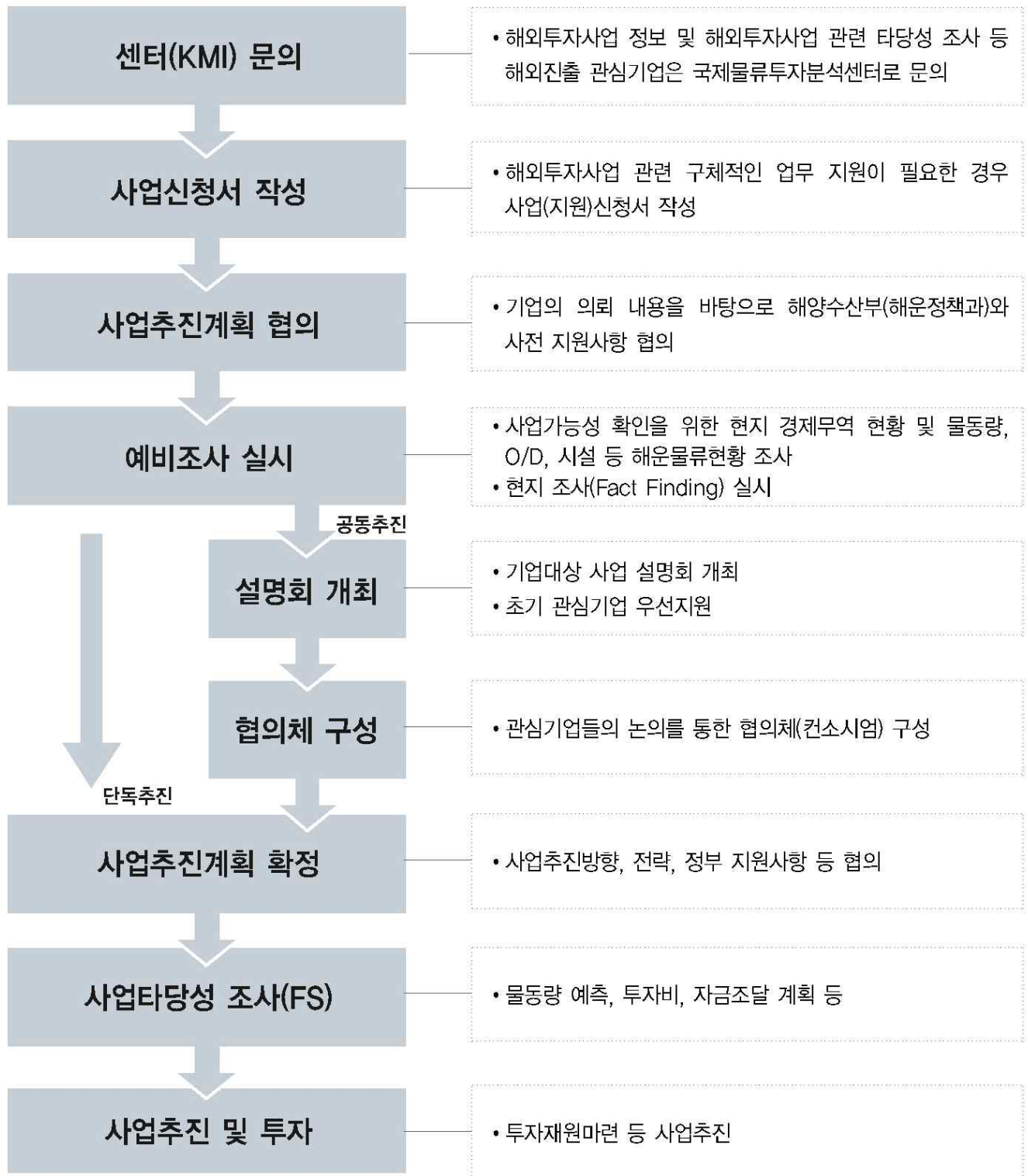
6) 중국 정부의 간접 소유 물류회사인 China National Materials Storage and Transportation Corp(CMST)의 최대 주주

- 중국의 물류산업은 2년 전부터 투자가들에게 관심있는 분야였음
 - 전자상거래와 소비 증가로 개별 소비자와의 물류 네트워크와 기업과 개별 소비자를 위한 공장으로부터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 확보가 필요했음
 - 투자자들은 개발 가능한 부지 확보와 기존시설의 개선에 투자를 집중해 왔음
- GLP 투자계획은 내년 초에 CMST development 주주들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cargonewsasia.com, 2014.8.05.

양규석 연구원 (☎ 02-2105-2928, yks8065@kmi.re.kr)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